

예산 전쟁 ... 광주·전남 국비확보 초비상

누락된 지역 현안사업 국회 심의단계서 되살리기 주력
예산소위 포함될 지역 국회의원 없어 예산 확보 어려움

21대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광주·전남의 내년 한해 살림을 책임질 예산확보 전쟁이 시작됐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정부 예산안에서 상당수 지역 현안사업이 누락됨에 따라 국회 심의를 통한 예산 확보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다만 광주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 대부분이 경험이 부족한 초선인데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소속 의원이 단 한 명뿐이고, 정작 중요한 예산소위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추가 예산확보는커녕 정부안으로 확정된 예산조차 지키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역구 국회

의원들의 분발이 요구되는 이유다.

29일 광주시와 전남도, 국회 등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예산을 심의하는 국회 예결위 예산안 심사 일정이 확정돼 내달 2일 예산 공청회를 시작으로 한 달 여간 예산심사를 이어간다. 내달 4~5일은 종합정책 질의를, 9~12일까지는 부별심사가 있다. 이어 16~27일은 국회 예산 심의 꽃으로 불리는 소위원회가 열리고, 30일엔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이 예정돼 있다. 12월 2일엔 예결위를 거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다만 매년 예산배분 등

을 놓고 여야간 대립 정국이 펼쳐지는 과정에서 예산안 심사 일정이 늦춰지는 게 다반사여서 일부 일정이 변동될 수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일찌감치 국비확보팀을 꾸려 서울에서 치열한 예산확보전에 나서고 있다. 최근엔 민주당과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을 만나 예산·정책간담회를 열고 열악한 지역여건과 추가 예산확보를 호소했다.

광주시는 일단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반영액(315건·2조7638억원)이 올해보다 14%(3388억원)나 증가한 성과에 고무된 분위기가긴 하지만, 국회심의 과정에서 정부예산안을 지키고 주요 현안사업 중 누락된 예산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펼치고 있다.

광주시는 경제전문 관료 출신으로 '경제

통'인 이용섭 시장을 중심으로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광주형일자리 근로자 주거비 지원(20억원), 친환경공기산업(950억원), 광주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10억) 등 24개 사업 1686억원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전남도도 올해(6조7261억원)보다 6.7% 증액된 7조1782억원(1006건)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한 만큼 정부안에서 누락되거나 삭감된 사업 예산을 국회심의 단계에서 살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경전선(광주-순천) 고속전철 건설사업(943억원),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2800→3200m) 사업(30억원), 국립심뇌혈관센터 설치(167억원), 광양항 자동차 컨테이너 터미널 구축사업(95억원) 등 70개 사업에서 모두 5000억원을 신규 반영 또는 증액하겠다는 목표다.

다만 국회 심의 단계에서 사업비 신규 반영 또는 증액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에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이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상황이 여의치 않게 흘러갈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총 50명의 예결위원 중 광주·전남에선 양향자(광주 서구), 김원이(목포), 서동용(순천·광양·곡성·구례) 등 3명의 의원이 포함돼 있지만, 지역 안배와 순번 등을 고려할 때 예산소위에 포함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지역구 의원 중 유일한 예결위원인 양향자 의원은 "코로나19와 갑작스러운 폭우 피해 등으로 인해 지역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광주·전남 발전을 위한 내년도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알립니다
읽기 편하고 보기 좋은 지면으로 바꿨습니다

11월 2일부터 지면 혁신

광주일보가 11월 2일(월요일)부터 새로워집니다. '68년 전통 신문'의 품격과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해 지면 디자인을 혁신합니다.

광주일보는 독자들 눈의 피로를 줄이고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특집면 등 일부 지면에서만 적용하던

5단 편집 체제를 전체 지면으로 확대합니다. 기존 6단 편집 체제 보다 제목과 사진 크기가 커져 읽기 편한 신문, 보기 좋은 지면으로 대폭 개편됩니다.

산뜻한 편집 디자인과 젊고 생동감 있는 지면을 통해 읽기 편하면서도 세련된 감각의 새로운 광주일보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光州日報社



MB, 징역 17년 확정
11월 2일 재수감

대법원, 다스 실소유주 인정 ... 벌금 130억원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실형 확정으로 항소심 직후 구속 집행 정지 결정으로 자택에서 생활해 온 이 전 대통령은 다음달 2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될 예정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욱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 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1~2심과 마찬가지로 다스의 실소유주를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이로써 10년을 넘게 끌어온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항소심의 실형 선고에 따른 보석취소 결정에는 재항고하더라도 즉시항고

의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항소심에서 보석취소 결정이 내려지자 재항고해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즉시항고가 제기됐을 때는 해당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는 형사소송법 제410조를 근거로 재항고가 즉시항고와 같은 성격인 만큼 결정 전까지 구속의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는 논리였다. 재항고 결정과 무관하게 이 전 대통령은 실형이 확정된 만큼 통상 관례대로 신변을 정리한 뒤 내달 2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기결수 신분으로 수감된다.

라·스 사태 주목받는 총장OB파 ▶6면
37세 최형우 KBO 타격왕 보인다▶18면

사랑과 감사의 66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0]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방탄국회' 사라질까

민주당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 헌정 사상 14번째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가결됐다.

이날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총투표 186명 가운데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체포안은 재적의원 과반출석, 출석 의원 과반찬성으로 가결된다. 체포안이 가결된 것은 역대 14번째로, 2015년 당시 새정치

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이후 5년여 만이다.

청주시립에 따르면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정 의원을 둘러싼 각종 부정 의혹은 4·15 총선 당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A씨가 지난 6월 11일 그를 검찰에 고소하면서 촉발됐다. 선거 뒤 의원실 합류 문제를 놓고 빚어진 갈등이 '어제의 동지를 오늘의 적'으로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정 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다수의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며 관련 내용이 담긴 회계장부 등 관련 자료를 통째로 검찰에 넘겼다.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청주시 의원 등의 돈이 정 의원 측에 흘러 들어간 정황과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 등이 추가로 드러났다. A씨를 포함한 정 의원 관련 사건에 연루된 선거캠프 관계자, 시의원 등 7명은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개시를 앞두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NEW
IOPE
RETINOL EXPERT
RETINOL 0.1%

2weeks
고함양 고함도 레티놀 분기당
밤자 주름 80% 단 2주만에 개선
IOPE LAB

슈퍼레티놀 단 2주만에 주름잡다

| 아이오페 레티놀 엑스퍼트 0.1% |

주름을 위한 당신의 노력들,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요?
이제, 주름보다 강한 슈퍼레티놀로
확실한 주름 개선 효과를 느껴보세요

레티놀은 아이오페

IOPE

*인·40~50세 성인 여성(평균) 2019.08.16~10.17 8주간(1회)피부인양조사단위
고려사항: 080-023-5454 | www.iope.com